

2010.06.03

기업분석팀 IT H/W 파트

동양화증권

심텍 [036710]

Bu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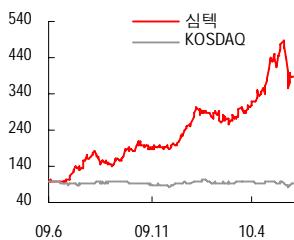
TP: 18,000원 (M)

換骨奪胎 스토리 : 심텍의 변신은 진행 중

전자/부품

Analyst 최현재
3770-3541
hjchoi@myasset.com

주가	10,100원
자본금	136억원
시가총액	2,747억원
주당순자산	1,268원
부채비율	2694.80%
총발행주식수	27,200,00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67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640,296주
52주 고	12,700원
52주 저	2,435원
주요주주	전세호 28.7%
외인지분율	2.30%

**2010년 심텍의 변신은 진행 중**

심텍의 2010년 환골탈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됨. ①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② 매각 후 잔여 자사주를 이용한 자회사 서스티오 합병, ③ 자사주 매각 대금을 이용한 KIKO 미결제 잔액 일부 상환임. 현재 자사주 매각과 서스티오 합병은 완료된 상황이며, 환율 추이에 따라 KIKO 미결제 잔액 일부 상환이 이루어질 전망임. 자사주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B/S 상 효과를, 서스티오 합병은 이익 증가라는 I/S 상 효과를 낼 것 이며, KIKO 일부 상환은 잠재적인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의 정도는?

자사주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KIKO 미결제 잔액 일부를 상환할 경우 환율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 그러나, 조기 정산의 경우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의 효과가 KIKO 평가손실 확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영업손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업 외수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음. 환율 상승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KIKO 거래손실과 평가손실 확대를 통해 영업외손익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판가인하 등이 없다면, 상승한 환율은 심텍의 연간 영업이익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놓게 됨. 1,250원까지는 환율 상승이 연간 실적에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며, 1,250원을 상회할 경우 손실폭이 확대되는 구조임

목표주가 18,000원, 투자의견 Buy 유지 : PCB 업종 내 top pick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증가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스티오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와 자사주 매각에 따른 현금 확보 및 KIKO 미결제 잔액 조기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또한 환율 상승은 영업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업외손지 악화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임. 올해 심텍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571억원으로 현재 2,700억원의 시가총액 수준은 PER 5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음. 심텍의 PCB 업종 내 top pick 지위와 목표주가 18,000원, 투자의견 Buy 를 유지함

Earnings Estimate

(단위: 억원, 원, %, 배)

결산(12월)	매출액	매출증가율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PER	EV/EBITDA	PBR	ROE
2008	4,150	18.9	355	-1,953	-1,510	-5,552	적전	-	4.4	-5.3	당기감식
2009	4,967	19.7	513	619	494	1,814	흑전	2.0	3.4	2.8	전기감식
2010E	5,560	11.9	737	754	571	2,101	15.8	4.8	3.8	2.3	87.1
2011E	6,342	14.1	868	916	694	2,552	21.5	4.0	2.4	1.5	45.7
2012E	7,070	11.5	861	952	721	2,651	3.9	3.8	1.6	1.1	32.4

換骨奪胎 스토리 : 심텍의 변신은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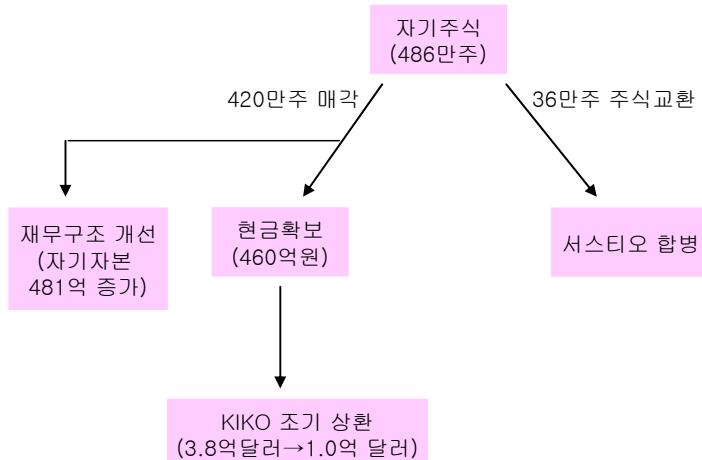
꾸준한 영업이익 창출(2008년 355억원, 2009년 513억원, 2010년 688억원 예상)에도 불구하고, 2008년 환율 급등에 따른 KIKO 평가손실 확대로 관리종목까지 지정되었던 심텍이 회복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발 금융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환율이 재차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불안한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심텍의 주가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2010년 4월 말 현재에도 약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KIKO 미결제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는 환율의 하락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심텍의 이익 창출 능력과 기업 구조 변화만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심텍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심텍의 2010년 환골탈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② 매각 후 잔여 자사주를 이용한 자회사 서스티오 합병, ③ 자사주 매각 대금을 이용한 KIKO 미결제 잔액 일부 상환이 그것이다.

현재 자사주 매각과 서스티오 합병은 완료된 상황이며, 환율 추이에 따라 KIKO 미결제 잔액 일부 상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사주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B/S 상 효과를, 서스티오 합병은 이익 증가라는 I/S 상 효과를 낳을 것이며, KIKO 일부 상환은 잠재적인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텍 환골탈태 시나리오



자료 :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1.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심텍은 2009년 말까지 총 485만 8,980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매입단가는 4,387원 수준이었다. 이 중 410만주는 KIKO 리스크가 불거진 2008년 이후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에 420만주의 자사주를 매각하여 약 462억원의 현금을 확보하였다.

자사주 매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환골탈태를 위한 현금 확보이다. 자사주 매각을 통해 확보된 현금 462억원은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실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KIKO 미결제 잔액의 일부를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두번째 효과는 자사주 매각 차익이 자본잉여금으로 반영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이다. 평균 매입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0억원 가량의 자본잉여금이 추가되었으며, 자기주식 마이너스 계정이 213억원에서 2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자기자본 계정은 약 464억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심텍은 2009년 KIKO 평가손실 확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여전히 4억 달러에 육박하는 KIKO 미결제 잔액이 남아 있는 관계로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향후 환율 상승에 따른 KIKO 평가손실 확대가 발생할 경우에도 자본잠식을 회피할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기주식 처분과 서스티오 합병을 통한 자기자본 증가 효과는 약 481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KIKO 잔액을 3억 8천만 달러로 계산할 경우 약 130원의 환율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심텍 자기주식 처분 내역					(단위: 천주, 원, 백만원)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자기주식 처분	처분 전	4,859	4,387	21,315	자기주식 차감항목 213억원
	자사주 매각	4,200	11,000	46,200	자기주식처분이익 280억원 자본잉여금 반영
	처분 후	659	4,387	2,891	자기주식 차감항목 184억원 감소
서스티오 합병	합병 교부	363	-	-	
	합병 교부 후	296	4,387	1,301	자기주식 차감항목 19억원 감소
전체 효과					자기자본 481억원 증가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2. 자회사 서스티오 합병 : 生食

심텍은 5월 24일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인 서스티오를 합병하는 이사회 결의를 발표하였다. 합병등기예정일은 8월 4일이다. 소규모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총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스티오의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9년 약 88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한 서스티오를 합병함에 따라 심텍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서스티오는 2008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9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주요 생산제품은 MCP(multi chip package), FMC(flash memory card)용 substrate이다. 최근 심텍의 substrate 부문 실적 호전의 일등공신이 MCP 및 FMC 용 substrate 매출 확대에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이익의 확대를 보장해 줄 것이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텍은 1999년 말 상장 이후 영업외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서스티오의 지분 구조(심텍 42%, 전세호 대표 42%, 임직원 16%)를 감안하면, 다시 한 번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서스티오가 생산한 제품을 심텍이 상품매출 형태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스티오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 필연적으로 대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심텍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호 대표이사의 심텍 지분율은 28.7%, 서스티오 지분율은 42%이다. 2008년까지는 서스티오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2009년 흑자 전환에 따라 그러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그 동안 누적되었던 적자로 인해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창출한 서스티오에 대한 가치가 71억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심텍 주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금액으로 우량한 기업을 합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구나, 합병 대가로 교부된 심텍 주식도 신주 발행이 아닌 자기 주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나 주당가치 희석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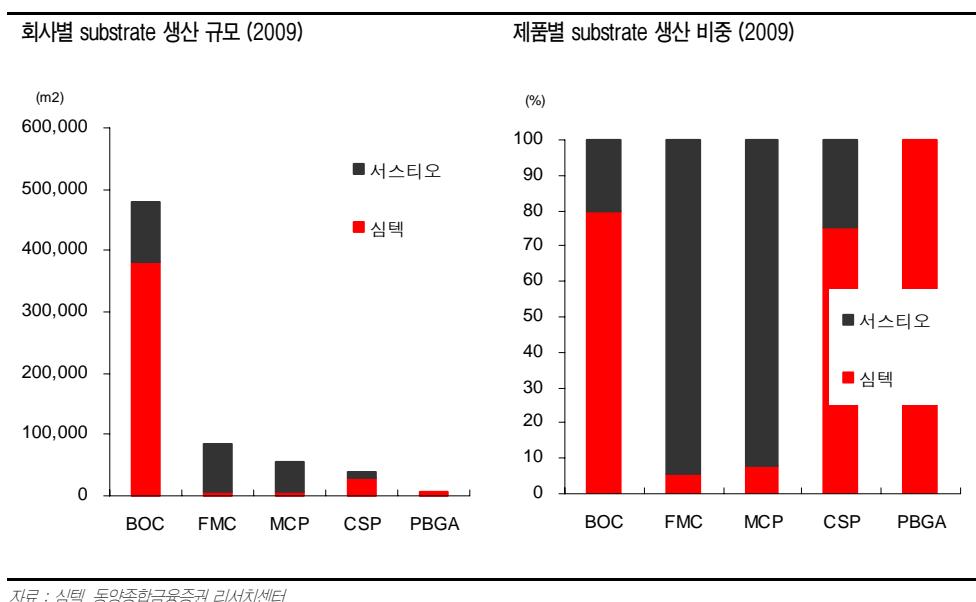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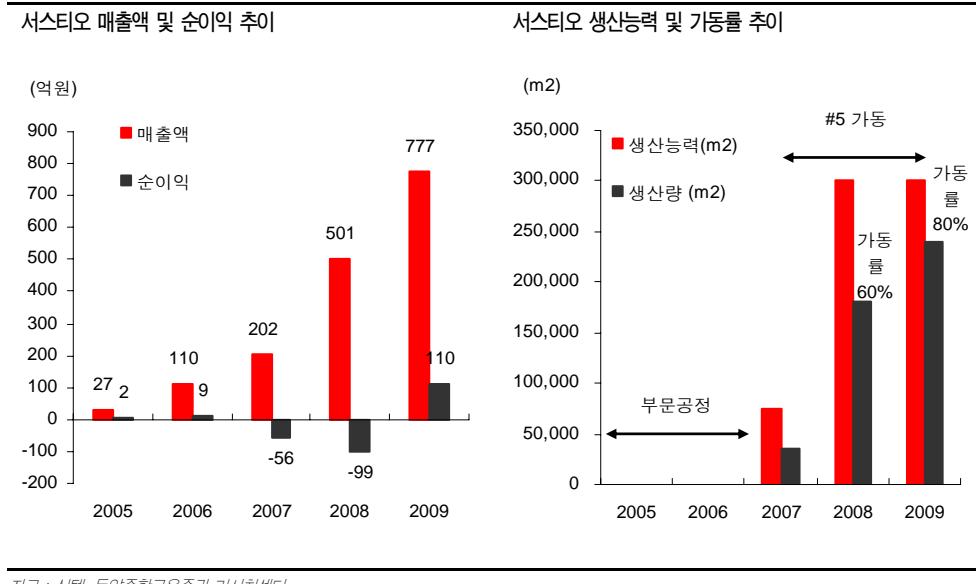
서스티오 합병 개요		(단위: 천주, 억원, 원, %)
	심텍	서스티오
발행주식수(액면가)	27,200	10,850
액면가	136	54.3
상장 여부	코스닥시장	비상장법인
주주 지분율		
심텍	2% (자사주 66만주)	42%
전세호 (CEO)	28%	42%
기타	70%	16% (임직원)
합병평가총액	3,114	71
합병주당평가액	11,450	6,537
합병대가교부		심텍 제외 서스티오 주주에게 심텍 자사주 교부 총교부 주식수는 36만 주
합병종료예정일(등기)	2010.08	2010.08

자료: 심텍,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심텍과 서스티오 비교		(단위: m2/M, mm, 억원, %)		
	심텍		서스티오	통합 심텍
	Main board	Substrate	Substrate	
Capa (m2/M)	80,000	45,000	25,000	150,000
# Factory	F1, F2	F3	F5	
주요 제품	Memory module 용 Server 용 LCD 용	PBGA CSP BOC	FMC MCP BOC	
차세대 제품	SSD	DDR4 & Mobile 용		
박판 대응성		0.06mm	0.04mm	
매출액 (09)	2,537	2,430	777	4,967
영업이익		513	88	601
영업이익률		10.3%	11.3%	12.1%
제품 수주구조	고객 → 심텍		심텍 → 서스티오	심텍이 공장별 생산 배분
제품 판매구조	심텍 → 고객		서스티오 → 심텍	심텍이 외주가공비 지급
자산/부채 (09)	3,914 / 3,774	663 / 643	4,577 / 4,417	

자료: 심텍,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서스티오는 그 동안 심텍이 판매한 substrate 제품 중 박판 대응이 필요한 MCP 및 FMC 용 제품 생산을 전담하였다. 2008년 이후 심텍의 신규 substrate 제품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도 서스티오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증가 때문이었다. 따라서 금번 서스티오 합병은 향후 심텍의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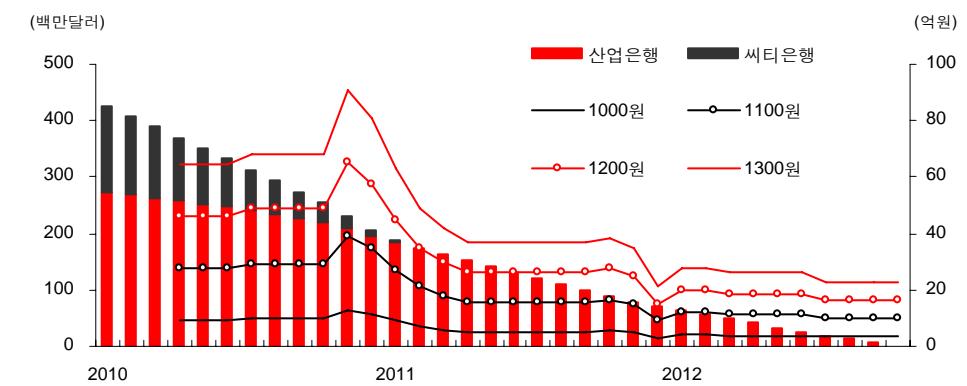
3. KIKO 미결제 잔액 상환 예정

420만주의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확보된 460억원의 현금은 KIKO 미결제 잔액 조기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3월말 현재 심텍의 KIKO 미결제 잔액은 3억 8,850만 달러였으며, 매월 2,000만 달러 내외의 달러를 KIKO 약정 환율(계약환율은 모두 933.5~965.0원 사이에서 형성)로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 미결제 약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매분기 거래손익이나 평가손익의 발생으로 인해 분기 실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가손익과는 별도로 매월 약정환율과 현재환율의 차이만큼 cash flow 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심텍의 입장에서는 2012년 10월까지 KIKO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평가손익은 중요하지 않지만, cash flow 상의 불확실성은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각한 대금으로 KIKO 미결제 잔액을 조기상환하려는 것이다.

당초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확보된 460억원을 바탕으로, 환율이 1,100원 아래로 하락하면 KIKO 미결제 금액 일부를 조기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5월 중순 환율의 급등에 따라 상환 시기를 놓쳤다. 조기 청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0이라 가정하고, 460억원을 1,100원에 상환에 사용할 경우, 약 3억 달러의 포지션 청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KIKO 미결제 잔액이 1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환율 리스크는 거의 사라질 수 있다.

월별 KIKO 잔액 및 cash flow 상 손실 추이



자료 :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의 정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사주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KIKO 미결제 잔액 일부를 상환할 경우 환율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정산의 경우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의 효과가 KIKO 평가손실 확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영업손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업외수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심텍은 매출액의 약 95%를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원재료 매입액을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분기 평균환율 1,143.4원과 기말환율 1,131.3원을 적용하여, 2분기 환율 상승에 따른 손익 변화의 영향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2분기 상승한 환율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환율 상승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KIKO 거래손실과 평가손실 확대를 통해 영업외손익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판가인하 등이 없다면, 상승한 환율은 심텍의 연간 영업이익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1,250원까지는 환율 상승이 연간 실적에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며, 1,250원을 상회할 경우 손실폭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자사주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현금 유동성 확보 (KIKO 미결제 금액 조기 정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 폭의 환율 상승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자본잠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변화가 심텍 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억원)	
원/달러 환율	주요 항목	1Q10	2Q10	3Q10	4Q10	2010
1,143 / 1,131	매출액	1,306	1,365	1,423	1,466	5,560
	영업이익	165	166	201	205	737
	KIKO 관련 손익	151	0	0	0	151
	환율 변화 효과	151	-192	42	44	45
1,200	매출액	1,306	1,429	1,490	1,535	5,760
	영업이익	165	207	244	248	863
	KIKO 관련 손익	151	-233	0	0	-82
	환율 변화 효과	151	-192	42	44	45
1,250	매출액	1,306	1,485	1,549	1,596	5,937
	영업이익	165	243	281	287	975
	KIKO 관련 손익	151	-402	0	0	-251
	환율 변화 효과	151	-325	80	82	-13
1,300	매출액	1,306	1,542	1,608	1,657	6,113
	영업이익	165	278	318	325	1,086
	KIKO 관련 손익	151	-571	0	0	-420
	환율 변화 효과	151	-459	117	121	-70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목표주가 18,000원, 투자의견 Buy 유지

PC 시장 성장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출하량 증가, substrate 매출액 중 non-BOC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심텍의 높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증가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스티오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와 자사주 매각에 따른 현금 확보 및 KIKO 미결제 잔액 조기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율 상승은 영업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업외수지 악화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심텍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571억원으로 현재 2,856억원의 시가총액 수준은 PER 5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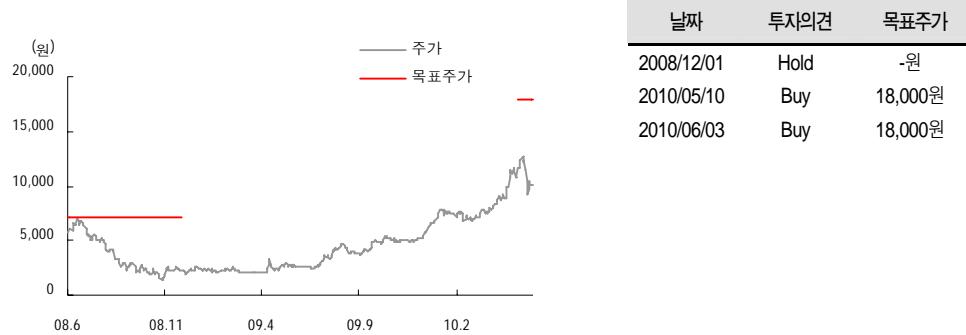
심텍의 PCB 업종 내 top pick 지위와 목표주가 18,000원, 투자의견 Buy 를 유지한다.

신택 (036710) 추정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결산(12월)	2008	2009	2010E	2011E	2012E
유동자산	1,490	1,738	2,978	4,083	5,077
현금 및 현금성자산	282	82	1,003	2,082	2,889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77	61	59	79	101
매출채권	588	879	1,149	1,001	1,060
재고자산	319	356	369	443	493
기타유동자산	219	361	398	477	532
비유동자산	2,467	2,175	2,078	2,038	2,021
투자자산	361	274	285	315	346
유형자산	1,679	1,734	1,599	1,493	1,420
무형자산	12	8	5	3	2
기타비유동자산	415	159	189	227	253
자산총계	3,957	3,914	5,056	6,121	7,097
유동부채	2,802	2,151	3,250	3,545	3,749
매입채무	227	348	349	419	467
단기차입금	1,148	15	1,198	1,198	1,198
유동성장기부채	158	447	576	576	576
기타유동부채	1,268	1,342	1,128	1,353	1,509
비유동부채	1,590	1,622	633	709	760
사채	0	120	0	0	0
장기차입금	540	1,178	256	256	256
기타비유동부채	1,049	325	377	453	505
부채총계	4,392	3,774	3,883	4,254	4,509
자본금	136	136	136	136	136
자본잉여금	489	504	782	782	782
자본조정	-226	-230	-45	-45	-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	124	122	122	122
이익잉여금	-887	-393	178	872	1,593
자본총계	-434	140	1,172	1,867	2,588
총차입금	1,847	1,759	2,029	2,029	2,029
순차입금	1,443	1,546	892	-233	-1,089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08	2009	2010E	2011E	2012E
영업활동 현금흐름	560	522	365	1,189	951
당기순이익(손실)	-1,510	494	571	694	721
비현금수익비용기감	2,670	82	87	208	19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27	225	211	186	174
무형자산상각	5	5	4	2	1
기타비현금수익비용	2,438	-148	-128	20	20
영업활동관련자산, 부채변동	-599	-54	-293	287	35
매출채권감소(증가)	-223	-306	-287	145	-62
재고자산감소(증가)	279	-37	-13	-74	-51
매입채무증가(감소)	-1	121	3	70	48
기타자산, 부채변동	-653	168	3	146	101
투자활동 현금흐름	-243	-939	-220	-176	-187
유형자산감소(증가)	-201	-178	-77	-80	-100
무형자산감소(증가)	-1	-1	0	0	0
투자자산감소(증가)	-107	19	-25	-30	-31
기타투자활동	66	-779	-119	-66	-56
재무활동 현금흐름	-88	217	776	66	43
사채및차입금의증가(감소)	104	217	273	0	0
자본의증가(감소)	-193	0	462	0	0
배당금의 지급	-40	0	0	0	0
기타재무활동	2	-0	41	66	43
현금의 증가	229	-200	921	1,079	807
기초현금	53	282	82	1,003	2,082
기말현금	282	82	1,003	2,082	2,889

손익계산서					
결산(12월)	2008	2009	2010E	2011E	2012E
매출액	4,150	4,967	5,560	6,342	7,070
매출원가	3,545	4,213	4,490	5,093	5,784
매출총이익	605	753	1,070	1,248	1,285
판매비와관리비	250	241	333	381	424
영업이익	355	513	737	868	861
영업외수익	347	498	246	292	340
금융수익	13	7	14	37	59
외환관련이익	291	157	20	20	20
지분법이익	0	4	6	0	0
기타수익	43	329	206	235	262
영업외비용	2,655	392	229	243	250
금융비용	118	102	141	151	151
외환관련손실	198	188	37	37	37
지분법손실	1	2	2	0	0
기타비용	2,338	100	49	55	61
*경상이익	-1,953	619	754	916	952
*특별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953	619	754	916	952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	-443	125	183	222	230
계속사업이익	-1,510	494	571	694	72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법인세효과	0	0	0	0	0
당기순이익	-1,510	494	571	694	721
매출총이익률 (%)	14.6	15.2	19.2	19.7	18.2
EBITDA Margin (%)	14.1	15.0	17.1	16.6	14.7
영업이익률 (%)	8.6	10.3	13.3	13.7	12.2
*경상이익률 (%)	-47.1	12.5	13.6	14.4	13.5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47.1	12.5	13.6	14.4	13.5
순이익률 (%)	-36.4	9.9	10.3	10.9	10.2
수정순이익률 (%)	-36.4	9.9	10.3	10.9	10.2
Key Financial Data					
결산(12월)	2008	2009	2010E	2011E	2012E
FCF	1,906	-381	187	1,093	791
EBIT	355	513	737	868	861
EBITDA	586	743	952	1,055	1,036
SPS (원)	15,258	18,260	20,440	23,315	25,991
EPS (원)	-5,552	1,814	2,101	2,552	2,651
DPS (원)	0	0	0	0	0
BPS (원)	-855	1,268	4,400	6,959	9,614
EBITDAPS (원)	2,156	2,730	3,499	3,880	3,808
매출증기율	18.9	19.7	11.9	14.1	11.5
영업이익증기율	0.5	44.4	43.7	17.8	-0.8
EPS 증가율	적전	흑전	15.8	21.5	3.9
EBITDA 증가율	3.0	26.6	28.2	10.9	-1.9
ROA	-40.5	12.5	12.7	12.4	10.9
ROE	당기잠식	전기잠식	87.1	45.7	32.4
ROI	18.2	37.6	33.5	40.2	48.3
배당수익률	-	-	-	-	-
PSR (배)	0.3	0.2	0.5	0.4	0.4
PER (배)	-0.8	2.0	4.8	4.0	3.8
PBR (배)	-5.3	2.8	2.3	1.5	1.1
EV/EBITDA (배)	4.4	3.4	3.8	2.4	1.6
부채비율	완전잠식	2,694.8	331.2	227.9	174.2
차입금/자기자본	완전잠식	1,256.3	173.1	108.7	78.4
순금융비용/매출액	3.1	2.0	2.4	1.9	1.4
영업이익/금융비용	3.0	5.0	5.2	5.7	5.7

신텍 (0367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최현재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등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등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시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등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등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Buy, Hold, Sell)와 위험도 2단계(H:High, L:Low)로 구분
- Buy : 10%이상(Low)/20%이상(High), Hold : -10~-10%(Low)/-20%~-20%(High), Sell : -100이상(Low)/-20%이상(High)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08년 2월19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기준 5단계(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 Sell)에서 3단계(Buy, Hold, Sell)와 리스크 2단계(High, Low)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시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